

2007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일본건축탐방을 다녀와서

2007 KAA Unbuilt Works Prizewinners Report on Japan Architecture



조원용 / 정회원, 다이아몬드건축사사무소(주)
by Cho, Won-yong, KIRA

약력

- 다이아몬드건축사사무소(주)
- 대한건축사협회 프레스센터 편집국장
- 안산대학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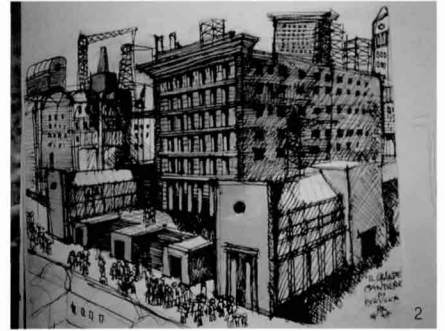
돌아보면 2007년은 참 여러 가지 뜻 깊은 일들이 많았다. 그 중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게 해줄 것이다.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심사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학생들의 멋진 결과물들을 프리젠테이션과 인터뷰를 통해 깊이 이해하려는 맘으로 보다 보니 필자의 학창 시절이 생각나 어린 후배들이 대견하고 기특하기까지 했다. 어쩔 수 없이 순위가 정해지기는 했지만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수고와 노력에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12명의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모든 것이 알차게 준비된 것임은 일정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특이하게도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비행기가 아닌 코비라는 고속열을 타고 가는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 부산인근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교통편이 되겠구나 싶었지만 두 번 다시 그 경험은 안하고 싶은 맘이 들 정도니 속 울렁거림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까지 전해질지 모르겠다. 여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은



캐널시티앞에서 단체사진

참여한 학생의 기행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느껴져 일정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줄이되 학생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느낀 소감 위주로 서술할 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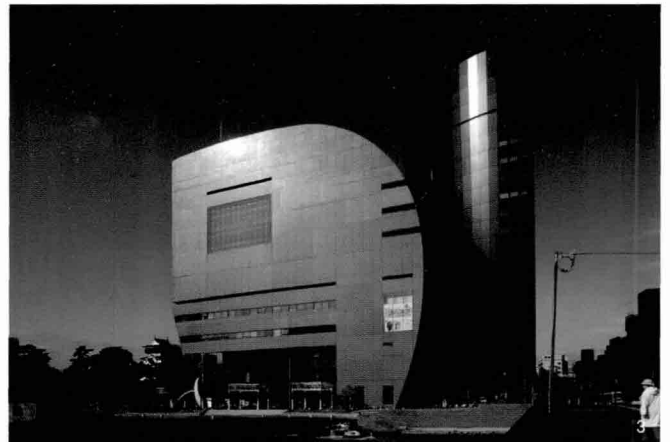


1. 고쿠라성 2. 알도르시의 알팔라포호텔 스케치
3. 아크로스 후쿠오카 내부전장 4. 하카타 소학교 교장선생님의 학교안내 5. 하카타 소학교 내부교실 및 홈베이스

원래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장이신 부산건축사회 정태복 회장께서 인솔자가 되셔야했는데, 사정상 못가시게 되어 차례를 따라 다른 위원에게 양보가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든 심사위원들이 참여하시기 어려운 입장이 된지라 가장 막내격인 필자가 인솔자가 되어 학생들과 동행하게 된 것이다. 물론 필자도 업무상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의 후배가 될 예비건축사인 그 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싶은 맘이 들었기에 제안이 왔을 때 기꺼이 참여의사를 전했다.

단 2박 3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 무엇을 얼마나 보았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상당한 일정을 소화했었고, 또 그 사이에 보너스로 '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필자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인데,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으로 강력 추천하는 것이 바로 '여행'이다. 여행을 통해 '사람'과 '삶'을 이해하는 것이 삶을 담은 그릇인 '건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과

'삶'을 이해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은 '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여행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도 처음엔 좀 서먹했지만, 하루 여행과 한 밤중까지 함께 지새며 대화의 시간을 가진 후엔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우리나라 건축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동역자'임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심지어 몇몇은 현지의 일본인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기에 그들과 바디랭기지(Body Language)를 해가며 소통을 하느라 수고를 하기도 하였다.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도록 걸으며 대가들의 작품과 교감하려는 젊은 에너지들은 그들이 알게 모르게 지식과 경험을 넓혀가고 있었고, 서로 대화하고 부대끼며 조금씩 건축가로써 자라고 있었다. 준비해온 자료를 꼼꼼히 살피거나 평소 책에서 보았던 대가들의 건축작품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감격을 느끼는 그들을 보며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지만, 꿈을 가지고 자라는 그들이 오히려



1. 아르코스후쿠오카의 외부 계단형 조경
 2. 고쿠라성의 해자에 비치는 건물 리버워크의 전경
 3. 리버워크 측면에서 경사면을 통해 바라보는 고쿠라성, 신구의 조화를 강조했다.

필자에겐 한 줄기 시원한 희망이 되었다.

가끔씩 가족을 데리고 먼 여행을 할라치면 아내의 함께 가기 싫어 하는 내색이 역력했다. 건축사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재미없기 일쑤고, 왜 그렇게 피곤하게 많이 걸어 다니느냐는 것이 그 이유다.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건축사 또는 건축인들의 여행은 일반인들의 그것과는 목적부터 다르지 않은가? 이번 여행을 하며 가족에게 들었던 반응이 우리 학생들에게선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볼 때 아하, 이들도 영락없는 '건축쟁이'들이구나 함을 느끼며 슬며시 미소가 지어졌다.

삼일 낮 이틀 밤을 함께 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

다. 아니 그들이 필자로 하여금 참 많은 이야기를 하게끔 묻고 또 궁금해 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앞으로 15년 또는 20년 후면 이 '월성부른' 후배들이 우리 건축계의 기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들과 같은 하늘 아래 함께 '건축'을 하는 선배임이 자랑스럽게 생각될 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여행을 기획하고 준비해준 대한건축사협회에 감사드리고, 또한 온갖 굵은 일을 도맡아 하며 만반의 준비에 최선을 다해준 대한건축사협회 김보선 팀장과 김기석 대리에게도 이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